

# 한국의 타악기

3523송지훈

## 1. 장구

장구는 모래시계 모양으로 허리가 잘록한 나무통의 양면에 가죽을 대어 만든 북이다. 한쪽은 반드시 막대기 모양의 채로 치며, 반대쪽 면은 맨손 또는 궁글채로 친다. 장구는 타악기 중 음고 조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악기이다.



## 2. 북

북은악기 가운데 대표적인 타악기로 통의 마구리에 동물 피막(皮膜)을 팽팽하게 씌워 울리게 하는 악기이다. 바닥에 읊혀 치거나, 북 양쪽에 둥근 쇠고리가 달려 있어 여기에 끈을 달아 어깨에 매고 친다.



### 3. 팽과리

팽과리는 테두리가 있는  
둥근 그릇 모양의 놋쇠 몸  
통(울림판)을 나무 채로 두  
들겨 연주하는 악기이다.



## 4. 징

징은 농악 · 무속음악 · 불교음악 · 종묘제례악 등에 사용하는 쇠로 만든 둥근 형태의 금속 타악기이다.

